

# 마무리 캠프 주장 신범수 “완벽했던 캠프, 열정 뜨거웠다”



KIA 마무리 캠프 주장 신범수

## KIA 제주도 마무리 캠프 완료

고된 훈련에도 웃음 잃지 않아 날 비뚤한 포수들 ‘할 것’에 집중 유지성 등 투수들 많이 좋아져 캠프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완벽했던 캠프, 열정이 뜨겁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제주도 마무리캠프단이 23일 마지막 훈련을 소화했다.

광주에서 몸만들기를 했던 선수단은 지난 1일 제주도 서귀포시로 건너가 본격적인 마무리훈련 일정에 돌입했다.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치러진 캠프는 강도 높게 전개됐다.

제주도 캠프 첫날부터 투수들은 불펜 피칭에 나섰다. ‘체력’을 키워도 강도 높은 훈련이 전개됐다. 체력 훈련은 마지막 날에도 빼놓을 수 없었다.

마무리캠프 주장 신범수는 “마지막 훈련으로 경기장에 있는 마라톤 코스를 두 바퀴 뛰었다. 등산로 같은 오르막길도 있는 코스를 30~40분 정도 뛰었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고된 훈련에도 선수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열정’이 바탕이 되면서 선수들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완벽한 캠프를 치렀다.

신범수는 “주장으로서 역할에 신경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애들이 너무 잘해줬다. 편하게 훈련했다. 모두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 잘 해주면서 야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애들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김종국 감독을 필두로 1군 코칭스태프가 캠프를 지휘하면서 선수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더 열정적으로 뛰었다.

신범수는 “대부분 2군에서 같이 지냈던 애들인데 1군 코칭스태프와 함께 한 게 큰 작용을 한 것 같다. 눈에 될 수 있게 잘 하자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 모두 열심히 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보였다”며 “새롭기도 했고, 작전과 배팅 상황에 맞는 연습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강행군 속에서 선수들의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포수로서 투수들의 성장세를 지켜볼 수 있었다.

신범수는 “공 받아보면서 송후섭, 유지성이 많이 좋아진 게 보였다. 유지성은 올해 2군에서부터 볼 받을 때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와서 공도 더 ভাল 것 같다. 강병우도 많이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투수들이 좋다”고 이야기했다.

마무리캠프 기간 ‘포수’는 뜨거운 자리였다. 주효상이 트레이드를 통해 KIA로 이적했고, 박동원은 FA로 LG로 떠났다. 변화가 있었지만, 신범수를 비롯한 포수들은 동요 없이 ‘할 것’에 집중했다.

신범수는 “포수들 이동 생각 안 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했다.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할 것 열심히 하자면서 훈련에 집중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올해 스윙 폼 변화를 주면서 결과가 안 좋았다. 올해 유난히 잘 안 맞았는데, 캠프에서 타격적인 부분 많이 정립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공 던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캠프단은 24일 오후 비행기로 광주로 돌아온다. 캠프는 끝났지만, 시즌 준비는 이제부터 ‘진짜’다. 선수들은 뜨거웠던 캠프 분위기를 이어 비시즌에도 쉼 없이 달릴겠다는 각오다.

“(홍)종표와 지성은 바로 합평에서 운동하겠다고 하더라”며 웃은 신범수는 “캠프 끝나고 쉼다는 말을 못 들었다. 어느 레슨장을 간다, 서울가서 운동하겠다 등 훈련 이야기만 한다. 열정이 장난이 아닌 것 같다. 나도 개인 훈련 열심히 하면서 내년 시즌에는 1군에서 많이 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나성범, 은퇴선수가 뽑은 ‘최고 타자상’

키움 이정후 ‘최고의 선수’ 선정 KIA 신인 윤영철 ‘아마 특별상’ 12월 2일 ‘은퇴선수의 날’ 시상

KIA 타이거즈의 나성범이 ‘한국프로야구 은퇴 선수의 날’ 시상식에서 ‘최고의 타자’로 단상에 오른다. 2023신인 윤영철(충암고)은 ‘아마 특별상’을 받는다.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이하 한은회·회장 안경현)가 12월 2일호텔 리베라 청담 베르사이유 호텔에서 ‘2022 블루베리NFT’ 한국프로야구 은퇴 선수의 날’ 시상식을 연다.

한은회는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시상식에서 현역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대호(롯데)에게 ‘레전드 특별상’을 수여한다.

‘최고의 선수’로는 이정후(키움)가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 타격왕인 이정후는 올 시즌 193안

타, 113타점, 타율 0.349, 출루율 0.421, 장타율 0.575의 성적으로 ‘타격 5관왕’을 달성하며 다시 한번 선배들의 인정을 받았다.

‘최고의 타자상’은 타격 전 부문에서 고른 활약을 선보인 나성범의 차지다. 올 시즌 KIA로 이적한 나성범은 144경기 전 경기에 출장해 0.320의 타율과 함께 21홈런 97타점, 출루율 0.402, 장타율 0.508 등을 기록했다.

‘최고의 투수상’은 평균자책점 1위(2.11)와 탈삼진 1위(224개)를 차지한 안우진(키움) 받는다.

2016년 육성선수로 시작해 올 시즌 타율 0.261, 16홈런, 54타점을 기록한 한화 김인환은 ‘최고의 신인상’ 수상자가 됐다.

BIC0412(백인천상) 수상자로는 올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대회 28경기에서 0.445의 타율과 1.216의 OPS를 기록한 문현빈(천안 북일고)이 선정됐다. 65.1이닝 13승 2패, 평균자책점 1.66을 기록한 KIA 2023 신인 윤영철(충암고)은 ‘아마 특별상-선수 부문’, 제4회 WBSC U-23 야



나성범

구월드컵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이끈 성균관대 이연수 감독은 ‘아마 특별상-지도자 부문’ 주인공이 됐다.

한국 야구의 발전을 노련한 김성근 감독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무진중 럭비, 회장배 대회 준우승

광주 무진중학교 럭비부가 제4회 대한럭비협회장배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24일 광주무진중에 따르면 무진중학교 럭비부는 최근 육군사관학교 경기장에서 리그전으로 열린 이 대회 결승전에서 영도 제일중에 7-12로 패했다.

무진중은 영도 제일중에 7-5로 리드했지만 중

료 부처가 올린 후 상대에게 트라이를 내줘 7-12로 준우승에 그쳤다.

무진중은 조별 예선에서 2점 차로 무릎을 꿇었던 영도 제일중에 다시 한번 발목을 잡혔다.

무진중은 2승1패를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 인천 연수중에 26-7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역시 ‘팀 킴’...여자컬링 회장배 대회 우승



제21회 회장배 전국컬링대회 여자 일반부에서 우승한 ‘팀 킴’ (강릉시청).

여자컬링 ‘팀 킴’ (강릉시청)이 제21회 회장배 전국컬링대회 정상에 올랐다.

대한컬링연맹은 이날 15일부터 23일까지 경북 의성컬링센터에서 열린 대회 여자 일반부 결승전에서 경기도청을 8-2로 꺾고 우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한국컬링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탈락하며 내년 국가대표 자격을 놓친 팀 킴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건재함을 알렸다.

스킵 김은정은 “4년 뒤 열리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팀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비하고 있다”며 “국내외 대회 경험을 쌓아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자 일반부에서는 서울시청이 경북체육회를 9-5로 대파하고 우승했다. 서울시청은 예선전부터 전승을 올렸다.

믹스더블 일반부에서는 김선영-정영석(강원B)이 이은채-김민우(서울LK)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11-1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 농심배 바둑 2차전... ‘만형’ 강동윤 25일 출격

출범 24회째인 ‘바둑 삼국지’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이 이번 주말 2차전에 들어간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국가대항전인 농심배는 25일부터 29일까지 본선 2차전 5~9국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1차전 1~4국 결과 중국이 3연승을 거둔 판빙위의 활약에 힘입어 3승 1패를 기록했고 한국은 1승 1패, 일본은 2연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첫 주자였던 신민준 9단이 판빙위에게 패했지만, 4국에서 ‘만형’ 강동윤(33) 9단이 판빙위 돌풍을 잠재우고 첫승을 거뒀다.

25일 열리는 2차전 5국에서는 강동윤이 일본의 강호 시바노 도라마루(23) 9단과 대결한다.

2014년 입단한 시바노는 20대 초반의 젊은 기사이지만 오랜 시간 일본 바둑계의 1인자로 군림

했던 이아마 유타 9단을 상대로 최근 명인전을 빼앗는 등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강동윤과 시바노는 2016년 국수산맥배에서 한 차례 맞붙어 강동윤이 승리했다.

한국은 만약 강동윤이 패하더라도 랭킹 1~3위인 신진서(22), 변상일(25), 박정환(29) 9단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시바노 뒤에 이아마 9단과 위정치 8단 2명이 남았다.

중국은 췌제(25)·구췌하오(24)·롄샤오(28)·튀자시(31) 9단 등 4명이 대기하고 있다.

농심배 우승 상금은 5억원이다.

그동안 농심배에서 한국이 14회로 최다 우승을 기록했고 중국이 8회, 일본은 1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데시벨, 인생은 아름다워
- 2관 올빼미
- 3관 데시벨, 동감, 아마겟돈 타임
- 4관 데시벨
- 5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 6관 올빼미
- 9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인생은 아름다워
- 7관 씨네커를 동감
- 8관 씨네커를 스트레인지 월드, 아마겟돈 타임, 자백,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수수개끼 꽃피는 천하덕양학교



광주시립오페라단 2022 송년음악회 금년새와 함께하는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I> 일시: 2022. 12. 3.(토) 17:00 2022. 12. 4.(일) 17:00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문의: 062-412-2507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오페라 시리즈 1 피노키오 일시: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613-8246

